

## 기성용 딸 시온, 벌써 이렇게 컸네...제라드와 찰칵

등록 2026.06.06 14:44:02



[서울=뉴시스] 축구선수 기성용이 딸 시온 양과 함께 스티븐 제라드를 만난 근황을 공개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6.06.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축구선수 기성용이 딸 시온 양과 함께 스티븐 제라드를 만난 근황을 공개했다.

기성용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시오니 제라드 삼촌 만난 날"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기성용과 딸 시온 양, 잉글랜드 축구 레전드 스티븐 제라드가 함께한 모습이 담겼다. 제라드는 시온 양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올해 12세인 시온 양은 훌쩍 자란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제라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을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했다.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챔피언스 임팩트 인 서울' 출전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 경기는 FC바르셀로나 레전드와 리버풀 레전드로 구성된 팀이 맞붙는 이벤트 경기다. 제라드를 비롯해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카를레스 푸울, 히바우두 등 세계 축구를 대표했던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기성용은 2013년 배우 한혜진과 결혼해 슬하에 딸 시온 양을 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축구선수 기성용이 딸 시온 양과 함께 스티브 제라드를 만난 근황을 공개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6.06.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